

영어구의 개념과 교수실천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리 정 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외국어교육의 내용을 잘 꾸리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외국어지식을 풍부하게 줄뿐아니라 그것을 원리적으로도 깊이있게 가르칠수 있도록 꾸려져야 합니다.》

영어문장론연구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중의 하나는 구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지고 그에 대한 교수내용과 방법론을 바로 찾는것이다.

이 글에서는 영어문장에서 구와 단어결합과의 관계, 구와 절과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구의 개념과 특징, 교수실천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영어문장에서 구와 단어결합과의 관계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영어문장에서 구와 단어결합의 차이는 그것들의 개념정의의 바탕과 고찰방식에서 찾아볼수 있다.

첫째로, 영어의 구와 단어결합은 개념정의의 바탕에서 차이가 있다.

단어결합은 그 어떤 언어적질서를 바탕으로 하여 주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개념으로서 그 어떤것이든지 개별적단어들의 의미구조적상관관계에 따라 결합된다.

구도 단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지만 일반적인 단어들의 맹목적인 결합인것이 아니라 문장의 통신적의미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장구성원리의 합법칙적조건에 따라 문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맺어지는 문장론적질서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단어결합은 문장구성의 측면에서보다도 문장구조를 벗어나 일반적인

언어학적개념으로 통용되는 용어라고 말할수 있으며 구는 문장구조의 한계내에서 문장구성의 총계성을 말할 때 문장의 1차적인 구성단위로서 그 개념을 정의할수 있다.

둘째로, 영어의 단어결합과 구는 다같이 문장론의 연구대상이지만 그것들에 대한 고찰과 구별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단어결합에서는 단어들의 결합이 나타내는 의미구조적뜻을 해석하는데 초점이 주어지며 문장에서 그것들의 쓰임의 측면에 대하여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는다. 특히 그 무수한 단어결합들을 어떤 구별적표식에 따라 구분할수 있는 원칙적인 기준이 주어져있지 않다.

한편 구는 문장구성의 측면에서 언제나 구조적으로 고찰되고 문장에서 1차적으로 결합되는 문장구성단위로서의 특성을 가지고있으며 구자체의 어느 성분이 주성분인가에 따라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전치사구, to-미정사구 등으로 구분되어 문장에서 어떤 성분적기능을 수행할수 있는가를 암시한다. 즉 구는 각이한 형태의 많은 단어결합들을 문장구조적측면에서 그 결합구조의 구별적표식에 따라서 구분해놓은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단어들의 자유로운 결합이라는 점에서는 구와 단어결합을 같은 개념으로 볼수 있겠지만 문장구성의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구라는 용어를 쓰는것이 보다 과학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다음으로 영어문장에서 구와 절의 관계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문장론적질서로서의 구와 절은 같은 개념으로 볼수 없다. 그것은 구와 절의 개념들과 문장론적질서를 통하여 찾아볼수 있다.

구란 가장 낮은 준위의 문장론적질서로서 문장의 성분화된 구성요소를 말한다. 구는 문장구조를 이루는 구성단위들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결합하는 문장론적결합요소라고 말할수 있다.

절은 구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진술내용을 이루는 준문장론적단위라고 말할수 있다.

준문장론적단위라는것은 진술내용은 있지만 그것을 현실과 맺어주는 진술성이 없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문장과 절의 차이라고 말할수 있다.

문장론적질서를 보면 문장이 구성되기 위하여 먼저 단어들이 의미구조적으로 결합되어 구를 이루며 구들은 문장성분적단위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다시 결합하여 절을 이루게 된다. 이때 절을 이루는 진술내용이 현실에 귀착될 때 진술성이 부여됨으로써 문장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문장구성원리에 따라 설명하면 구구조의 준위에서는 단순한 단어결합의 원리가 작용하며 절구조의 준위에서는 구성성분들사이에 상관관계의 결합규칙이 작용한다.

문장구조는 이와 같은 구와 절의 결합원리에 기초하여 총체적으로 조직되며 사람들사이의 통신적의미를 전달하는 언어행위의 기본단위로서의 언어적사명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어구에 대한 교수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첫째로, 영어구의 개념과 구조를 원리적으로 잘 인식시켜야 한다.

구와 문장의 기본차이점은 구가 하나의 품사소속성에 기초하여 식별될수 있는 문장의 1차적인 구조적단위라면 문장은 단어 및 구의 결합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통신적의미실현의 기본단위이라는것이다.

례: a. the grass on the book (구)

(책우의 풀잎)

b. He touched the grass on the book.
(문장) (그는 책우에 있는 풀잎을 만졌다.)

영어에서 구는 핵심적인 구성성분의 품사소속성에 따라 기본적으로 명사구(NP), 형용사구(AP), 전치사구(PP), 부사구(AdvP), 동사구(VP) 등으로 구분된다.

영어구에는 우선 명사구가 있다.

명사구는 명사를 주도적요소로 둘이상의 단어들이 문법적으로 결합되어 문장구조를 이루는데 참가하는 문장의 성분화된 유의미적단위를 말한다. 그것을 도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명사구의 구조도형

기능	구 조			
례	한정어	앞수식어	주도어	뒤(위치)수식어
	the those two that	lovely German	tramp kids boys girl	playing outside with blond hair who came to Korea

영어구에는 또한 형용사구가 있다.

형용사구란 형용사를 주도적요소로 둘이상의 단어들이 문법적으로 결합되어 문장구조에 참가하는 문장의 유의미적성분단위를 말한다. 그것을 도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기능	구 조		
례	지정어	주도어	뒤(위치)수식어
	very rather extremely	young worried unwise fond envious	about the future of the mountain of Bob's success

영어구에는 또한 전치사구가 있다.

전치사구란 전치사를 주도어로 하고 명사

구나 절과 문법적으로 결합하여 문장구조를 이루는데 참가하는 문장의 성분화된 유의미적단위를 말한다. 그 구조를 도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기능	구 조		
례	지정어	주도어	보충어
	right	before without about	the party a word the poem

영어구에는 또한 부사구가 있다.

부사구란 부사인 주도어와 수식어의 두 요소로 이루어져 문장구조를 이루는데 참가하는 문장의 성분화된 유의미적단위를 말한다. 그 구조를 도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기능	구 조		
례	지정어	주도어	뒤수식어
	extremely barely	recently slowly faster early	than 100 m.p.h enough to catch the last bus

영어구에는 또한 동사구가 있다.

동사구란 어휘적의미의 동사를 주도어로 하고 각이한 형태의 구들과 결합하면서 문장구조를 이루는데 참가하는 문장의 성분화된 유의미적단위를 말한다.

동사구의 구조를 도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기능	구 조		
례	기능어	주도어	뒤수식어
	was are should have	killed laughed watching listening denied	the football game with great attention that she was sick

둘째로, 영어구의 특징을 옳게 인식시켜

구를 정확히 판별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우선 많이 쓰이는 명사구들의 형태와 그 특징들을 잘 알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어명사구의 유형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례: that small kite (저 작은 연)

the poet in the garden

(정원에 있는 시인)

any new-born baby (갓 태어난 아기)

the old gentle professor who moved yesterday (어제 이사온 젊잖은 교수)

이 류형들에서 첫 단어들은 한정어들이며 명사구들이 가리키는것들을 한정한다. 다시말하여 명사구의 지시대상이 규정적인가 미정적인가, 하나인가 하나이상인가 등 명사구의 의미를 한정한다.

명사구구조에서 기능한정어는 정관사, 미정관사, 소유대명사, 지시대명사, 수사 등과 같은 광범한 범위의 단어들로 이루어지며 주도어의 앞에 놓인다. 그러나 이 모든 항목들이 함께 쓰일 때에는 정해진 순서로 놓인다.

례: half this cheese (이 치즈의 절반)

twice these sums (이 량의 두배)

such a happiness (이렇게 큰 행복)

명사구의 수식적요소는 주도어에 종속된다. 한정어와는 달리 수식어는 주도어의 앞과 뒤에 놓일수 있다. 주도어의 앞에 오면 앞수식어라고 부르며 뒤에 오면 뒤수식어라고 부른다.

명사구의 수식은 두가지 방식 즉 서술적수식과 분류적수식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서술적수식어는 명사구가 지적하는 대상의 특징적인 성질을 서술한다.

례: the pretty girl (아름다운 소녀)

서술적수식의 주요특징은 very, rather, absolutely와 같은 강조어들이 수식어앞에 놓인다는것이다.

례: the very pretty girl

(아주 아름다운 소녀)

분류적수식어는 명사구의 주도어가 나타내는 부류의 하위집합을 가리킨다.

예: the looking glass (거울)

분류적수식어 looking은 glass를 부류적으로 세분화한다. 한정어 the가 있음으로 하여 명사구 the looking glass는 a certain class of glass를 의미한다.

분류적수식어의 주요특징은 그 어떤 강조어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는것이다.

예: the extremely short pencil ○

(아주 작은 연필)

the extremely organic glass ×

또한 영어문장구성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동사구들의 특징을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동사구들에는 하나의 지배적인 구성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어휘적의미를 체현하고있는 동사이다. 그밖의 종속적인 구성요소들은 주도어동사의 앞이나 뒤에 올수 있다. 주도어동사의 앞에 오는 요소들을 조동사 또는 보조동사라고 하며 뒤에 오는 요소들은 보충어들이라고 한다.

예: read the book carefully

(책을 세심하게 읽다)

should read the book carefully

(책을 세심하게 읽어야 한다)

동사구의 앞에 올수 있는 조동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조동사: be
- 양태조동사: shall, will, must, can, may, might, should, would, could, ...
- 완료, 지속태를 나타내는 보조동사: be, have
- 피동상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be

예: could write

talking

will be said

might have been running

자동사들은 보통 한 단어동사구를 이루며 주도어기능을 수행한다. 타동사들은 뒤에 오는 문장성분들을 보고 식별할수 있다.

우리는 영어문장구성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외국어교수내용을 잘 꾸리는데 더욱 큰 힘을 넣어야 할것이다.